

'어르신 삶의 질 향상' 모두의 책임

다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년층 신도가 많은 불교계는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복지 등 노인포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담 '고령화시대 불교의 역할'

"사찰을 노인복지 요람으로"

▲각현=노인인구가 7%를 넘어 고령사회라고 해서 모든 제도나 생활의 기준을 노인우선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이탈현상에서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노인의 소외문제, 빈곤문제, 역할상실문제 등을 사찰이 적극적으로 수렴,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운스님

불교노인복지 전문기구창설 지속적 후원

▲각현=전국의 사찰과 주지스님들이 '효의 사회화운동'을 전개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마다 양로원, 노인주간보호소, 노인무료병원, 경로식당, 노인대학 등을 설치·운영하여 전국인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제도의 확대를 '사회적 효, 국가적 효'를 실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운=지방자치시대를 맞아 25개 교구본사나 재정능력이 있는 사찰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찰이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그룹홈이나 영불당, 경로식당, 노인무료진료소, 역사탐방반 등을 운영하거나 사찰의 환경정리 및 미화작업이나 재전 가꾸기 등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요.



각현스님

'효의 사회화' 전국사찰서 앞장서야

▲성운=노인은 흔히 빈곤, 건강, 고독, 역할상실 등 4고(苦)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스님들의 노후문제도 다를 바 없습니다. 노후대책이 문제되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교구마다 요양원이나, 영불당, 특수선원 등 경로시설을 만들고 예산책정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불교노인복지 현황과 과제

금세기 마지막 해인 99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이지만 IMF시대를 사는 우리 노인세대는 심화되는 가난과 소외속에 놓여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복지시설은 98년 10월 현재 1백85개(무료 1백52개, 유료 17개, 실비 16개).

스님 노후복지 대책

노후의 거처·건강등 걱정 "입적할 때까지 수행가능하게"

문중없고 사재없는 스님들은 노후가 걱정이다. 평생 수행에 전념하며 깨끗히 한길을 걸어 왔지만 그 말은 외탁할 곳이 마땅치 않다. 지난해 2월 조계종 불학연구소가 조계종 본·말사 주지 6백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행정신 회복(27.1%)에 이어 승려의 노후복지 대책(27.3%)을 종단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복지현장 탐방

'성리원 실버타운의 하루'

구급 25일 오후 1시 성리원실버타운 식당. 점심공양을 마친 할머니들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난로가에 모여 앉았다. 말도 표정도 없이 타오르는 장작불에만 시선을 집중할 뿐이었다. 적막을 깨고 한 할머니가 "이곳이 극락인 것 같아요"라며 말문을 연다.

교계 노인시설 50여곳 운영

절마다 노인법회·포교에 관심들

없는 곳은 29개에 불과할 정도로 노인복지시설은 종교단체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물론 비인가시설을 포함하면 불교계의 노인복지시설은 이보다 훨씬 많은 50여개 이상의 불교노인복지시설이 있다.

노후복지의 개선방향은 승려양로원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스님들의 대부분은 스님들의 노후 복지대책이 부진한 이유가 '재정의 부족'보다는 '종단복지정책 및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노후복지의 개선방향은 승려양로원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우리 외로울 틈이 없어요



이시장 법성스님의 지도 아래 서예를 익히는 어르신들.

우린 외로울 틈이 없어요

활을 하며 정신적 안정을, 오후에는 여가생활로 삶의 활력을 얻는다. 점심공양시간이 지나면 성리원은 활기에 넘친다. 두툼한 외투에 운동화 차림의 몇몇 노인들은 운학산 자락으로 산행을 떠나고, 노래방에서는 정겨운 노래가라리가 울려 퍼진다.

문제 상담실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찰과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영불당이나 임종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영당공인·납골당 등 장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교노인복지시설 현황

Table with 4 columns: 지역, 시설명, 연락처, 시설유형. Lists various Buddhist elderly care faciliti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Seoul, Busan, Daegu, etc.

Large advertisement for Samhwa University (삼화불교대학) featuring student recruitment information, including course details, application procedur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university.